

제 6 장 하시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분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류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주 예수님의 사역을 훼방하고 말로 힐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파들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어보는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들의 기원에서부터 그들이 추구하던 것까지 살펴 봅시다.

1. 바리새인의 기원- 하시딤의 정체: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처한 자기 공동체를 격려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안간힘은 말라기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지만 각자의 이름이 여호와와 함께 들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예언자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사람(말 3:16), 소위 "경건한 사람들" (the godly people = Hasidians)은 주전 2세기 이스라엘이 종교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외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마카비 1서 2:42에, "이스라엘의 힘센 전사들인 '하시디안'들의 일개 중대가 그들과 연합하였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많은 하시딤들이 마카비혁명을 지지해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하시딤은 헬레니즘 문물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개탄하던 무리들로서 성전이 이방신으로 더럽혀진 것에 항거한 점에서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마카비형제들과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마카비혁명이 외견상 성공으로 끝났을 때, 하시딤은 기뻐하고 이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가문이 정치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아귀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하시딤은 이들과 더이상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다 마카비 형제인 요나단은 주전 152년 셀류키드왕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받아 수행하다가 이스라엘백성들에게 143년 유대민족을 반역했다고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건과 전통을 존중하던 하시딤은 이걸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이들은 대제사장직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교도의 나라 헬라제국의 지배자인 알렉산더 발라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받은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요나단 사후에 유대민족의

추대를 받아 한시적으로 대제사장겸 군사통치자로 시몬이 옹립됨으로 명실공히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통치할 때 하시딤은 하스모니안 왕가는 정치적으로 통수권을 가질지 모르나 사독계열이 아님으로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합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하스모니안가는 하시딤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출현한 것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봅니다. 즉 '바리새'란 말 자체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 피했고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 여러 문제에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꼭 승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 점이 바리새파가 율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체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구전법'도 중요하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힐렐과 샨아이파가 창설한 랍비 학교는 구전법을 시내산 모세의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것은 (→구전법은 반드시 식사전 손을 씻어야 했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 15:1-3)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구전법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 15:3에서 "어찌 너희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말씀하시며 구전법에 맹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망각한 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지요 (마 23:23; 미가서 6:8).

2. 사두개인의 기원

사두개인의 기원은 바리새파의 기원보다 훨씬 더 모호하며 신학적으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표준적 유대교로 평가받게 된 것은 바리새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 신자들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 부활의 교리, 또 죽음 후 심판사상을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왔다고 다 비판하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예정론에 반대하여, 그들은 만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교리는 바리새파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조: 부활신앙과 심판사상은 조로아스터교에서가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다른 입장을 파악하여 바울은 재판받을 때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행 23:6-11)

사두개인들은 신앙적 교리에서보다 정치적 역할에서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모니안가의 요한 힐카누스의 조인자로 정치무대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당파 이름을 사독대제사장에게서 기원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스모니안의 대제사장직을 지지함에서 이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타당성을 받는 것은 신디코이 (Syndikoi; 회의의 회원들)에서 와서 히브리화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의 산디크 (saddiq; 의로운)과 결합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하시딤, 곧 바리새파와 결별하고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로부터 사두개파는 여당이 되고, 바리새파는 야당으로 민중당이 되어 주전 76년 알렉산더

안내우스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정치구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몇몇 부유한 가문, 지도적 제사장 가문에 한정되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도시상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체제에 대한 반발은 알렉산더 안내우스 때 절정에 달해서 8,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8,000명의 바리새파자도자들이 시골로 도망가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안내우스의 사후에 그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9년은 바리새파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이는 그녀 자신이 바리새파 시므온 벤 쉘다크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3. 산헤드린의 기원과 역할

이렇게 해서,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후, 바리새인들은 국가회의 (산헤드린)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헬라제국 지배 하, 혹은 바사 지배하에서 신정국가로 있을 때 내정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을 자문하느 기관이었습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 이 회의는 “백성들의 장로들”로 구성된 것으로 언급합니다.

로마제국이 팔레스틴을 정복한 후, 산헤드린의 역할을 감소시켰습니다. 또 헤롯이 유대왕이 되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똑 같이 그들의 대부분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주후 6년 유대가 로마속국이 되었을 때, 산헤드린은 유대 내사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차지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총독에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후 60년동안 대제사장은 정기적으로 부유한 사두개파 가문에서 피선되었고, 이러한 가문들이 산헤드린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소수였지만 민중의 지지는 상당하여 그들은 산헤드린 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산헤드린은 공회, 장로들의 단체, 의회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 구성원들을 묘사하는 용어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마 21:45; 요 7:3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막 14:53)등입니다.

4. 신약시대 이들의 활동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약 6천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오래 전에 주어진 율법의 규례들을 당시 상황에 맞도록 한 다고완화시킨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율법의 참 뜻을 버린 경우가 많았음으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여 5계명의 정신을 무시하게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두 학교 중, 샴마이학교는 율법을 점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고, 힐렐학교는 좀더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후 66-73년 유대전쟁 후 유대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활발하게 일했던 요한 벤 작카이와 그 동지들은 힐렐학교에 속하였습니다.

의식상 정결을 중요시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정결법칙, 십일조에 철저히 못한 동료 유대인들을 상당히 멀리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 중 대다수를 점령했던 이들은 “그 땅의 백성” (암 하레스)이라고 불리웠고, 율법과 종교적인 것에 문외한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7:49) 바리새인들은 70년 제 2 성전이 함락된 후, 유대사회를 재건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파당이 되었고, 그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제 7 장 에센파

신약시대 유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제 3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파의 이름은 에센파로서 기독교의 기원과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의 이름, 에센의 기원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흥미있는 설명은 아랍어, “아시아” (치료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랍어 테라퓨타이 (therapeutai)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필로는 애굽의 경건한 유대사회를 그 단어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라는 글에서 유대의 에센파를 테라퓨타이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로는 에센파에 대한 최초의 제보자입니다. 그 외에 1세기의 요세푸스, 플리니 (Pliny the elder)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플리니의 언급에 의하면, “서쪽 바닷가에 에센파가 살고 있다...그들은...우리의 감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인없이 ...돈도 없이...살며, 이 집단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존속하고 있다.”

필로는 에센파에 대해 두 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와 “히포데티카”가 그들입니다. 필로는 에센파를 4천으로 추측하는데, 여러 마을에 살면서, 농업과 비슷한 업에 종사하고, 성경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의식상 정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도 지적한다. 모든 재산, 돈, 음식, 옷가지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희생제사, 맹세, 군복무, 상업행위도 삼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를 두지 않았고 병약하고 늙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덕행을 장려했기에, 필로는 참으로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고 그들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필로보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데, 에센파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동네에 흩어져 살며, 손님대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센파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한 예정론자였다고 합니다. 고대사 (Antiquity) 18권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에센파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의의 열매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그들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적당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세입과 땅의 소산물을 거둬들이고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식량준비를 하게 한다.”

요세푸스는 누구든지 에센파와 인연을 맺으려면 3년동안 시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시험기간 후 초신자는 물론 정결케 하는 의식이 허락되었고, 2년 뒤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공동식사를 허락받기 전 엄숙한 서약을 맹세해야 되었다. 첫째, 신을 향하여 경건을 지킬 것. 인간을 향하여 정의를 지킬 것. 자의나 타의에 의해 아무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말 것. ...항상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폭로할 것....”

그러한 맹세에 따라 훈련은 엄격하였고 과문당한 사람은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동료들과 아침 기도송을 낭독했습니다. 정오무렵까지 일을 하고 목욕 후 베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정회원들만 허락되었습니다. 식사 때 그들은 조용하고 근엄하였습니다. 식사 후 베옷을 벗고 다시 작업복을 입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힉폴리투스의 “모든 이단들에 대한 반박” 제 9 권은 요세푸스의 진술을 어떤 점에서는 시정하고 다른 점에서는 보충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성가를 부를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센파가 평화주의자가 아닌 것은 로마와의 전쟁 시, 유대 반란군의 강력한 사령관이었던 요한이라는 에센파 당원의 출현으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에센파와 영혼불멸성과 육체의 부활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필로에 의하면 에센파는 모세에 의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에센파는 주전 2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에센파 중 한 사람은 메나헴으로, 그는 헤롯이 소년시절 학교에 가는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헤롯은 에센파를 존경하였고, 메나헴과 이름이 같은 그 손자 메나헴을 궁중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제 8 장 열심당

열심당원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어 "관나임"(qannaim) 혹은 아람어로 "관나나야"(qananayya)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열심"을 의미합니다. "젤롯"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젤롯타이"(zelotai)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에 반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점적 명예를 피하는 종교적 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릴라 식으로 테러를 하기도 하며, 신념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함을 그 특징으로 했습니다.

1세기를 전후해서 활발했던 열심당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영적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바알송배 사건에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부패를 근절할 과감한 행동을 취한 사람입니다(민 25:7-13; 시 106:28-31).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에 필적한 열심을 나타냈다고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왕상 19:1) 젤롯당은 마카비 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맛다디아는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임종시, "엘리야가 율법에 대한 큰 열심으로 승천하게 됨"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카비1서 2:58). 안티오쿠스

4세의 관원이 우상숭배, 곧 이교제사를 명했을 때 이에 굴종하려던 유대인들을 맞다디아는 죽이고 이교의 단을 꺾은 장본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에 열심이 있어 언약을 지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나오라"(마카비 1서 2:24-7)는 말에서 헬리어로 “열심을 내다”라는 동사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과격한 열심당원들이 유대교의 역사상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건 어느 때였을까요? 열심당이 과당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 최초의 문헌들은 주후 66년 로마에 항거한 것과 젤롯당을 연관짓습니다. 즉 유대 전쟁의 시발은 젤롯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반란군을 지휘했던 므나헴과 추종자들이 원조격이 되는 셈입니다. 당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다는 대전제에 있어서 만큼은 바리새파와 다를 게 없겠지만, 바리새파가 이방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데 반해, 젤롯당은 셀루키드 시대의 맞다디아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혼동해서 안되는 것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마카비 혁명과 젤롯당의 혁명은 시대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주전 2세기였고, 젤롯당의 활동은 1세기에 활발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 활발하였던 것을 신약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젤롯당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도 하는 시몬과..."(눅 6:15; 마 10:4). 곧 시몬은 젤롯당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젤롯당을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F.F. 부르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을 잘 지적합니다. 유대 사회나 로마 질서에 공히 위협되는 인물로 열심당원을 처형하면서, 기존의 질서에 거슬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운동의 주모자로 예수님을 함께 처형하려 한 것이 저들의 의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젤롯당은 유대 전쟁의 촉발제 역할을 했다가,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도 마사다라는 근교의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결국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함락될 시점에 달하자 이들 모두는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열명의 남자를 뽑아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한 명이 남은 아홉명을 다 죽이고, 결국은 그 한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들을 라틴어적인 용어로 '시카리'(sikarioi)라고 불렀는데, 이 호칭은 이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로마적인 유대인이나 외국 요인들을 암살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젤롯당은 단순한 폭도도 아니며, 체계적인 종교신념을 가지고 항거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애국적 유대인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반외세적인 무리만도 아니었던 것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대항했음에 보여 집니다. 요세푸스가 이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그 자신이 유대의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F.F. 부르스는 지적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1세기 유대 분파 중에 에센파와 젤롯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사뭇 다릅니다. 에센파가 철저히 분리주의자적 자세로 탈세상적이었다면, 젤롯당은 현실 참여의 기치를 내걸고 그 안으로 뛰어든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1세기, 적어도 주후 80년까지 유대교 종파는 참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자, 여기까지면 1세기의 유대교 분파는 모두 정리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젤롯당 등 네 파당을 공부한 것입니다.

제 9 장 콤란공동체

앞에서 유대의 네 분파를 공부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분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콤란 공동체는 특별한 성격때문에 별도로 다룬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콤란 공동체'란 이름은 생소할 것은 신학계에도 알려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적지는 1947년 사해 서북쪽 한 동굴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이 동굴들에서 발견된 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서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콤란 공동체'의 기원과 특징: 먼저 이 공동체의 무리들은 스스로를 고난의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마스킬림)들이 당하는 고난과 자기들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요나단이 주전 152년 불법으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함으로써 명백해진 하스모니안들의 야심은 "마스킬림"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역 시작 후 곧 죽임을 당한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지자들의 본래 뜻을 기리며 광야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으로 뭉쳐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것을 공동생활을 통해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하스모니안들에 의해서도 핍박받았으므로 분리주의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전쟁까지 존속되었던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2. 콤란 공동체의 생활: 한마디로 엄한 규율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내부 규약을 담고 있는 "공동체 규율서"에 따르면 15명(제사장 3명, 평신도 12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동회의'에서 피택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열다섯 명은 의의 교사가 공동체를 조직할 때의 핵심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총회는 '대중' 회의로 개최되었고 그 순위에 따라 좌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시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캠프별로 나뉘어 감독과 그들 모두를 총괄하는 대감독이 있었는데, 그 대감독의 역할 중의 하나는 입회를 원하는 자를 심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 기간 동안 재산이 공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성서를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무절제나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정해진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웃거나 기도 시간에 즐기거나 하면 며칠씩 밥을 안준다든가 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3. 공동체 의식: 콤란 공동체는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예식만으로는 아무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식사 시간은 참 중요했습니다. 공동식사는 10인이상이 모여 제사장이 축사한 후 떡이나 포도주를 들었습니다. 회중 규칙서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신정정치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가오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으므로 메시아 시대의 식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파의 율법 해석은 참으로 엄격하여 바리새파 삼마이 학교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쿠파 할라카라는 행동 규율은 대단히 율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상당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쿠파 공동체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법적 제사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및 레위 지파를 온전히 보존하여 제대로 된 성전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쿠파 공동체는 스스로를 "의로운 남은 자들" 혹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언약의 성도들", "빛의 아들들", "진리의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즉 다니엘 7:22, 27에 나오는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위임받은 성민(聖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을 것입니다.

4. 에센파와 쿠파공동체의 관계성: 쿠파 공동체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롯당보다도 가장 에센파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센파는 쿠파 공동체와 신학적으로 유사하고, 양자가 거의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존재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는 세상과의 결별을 주장했고, 율법에 대해 강조했으며, 메시아 대망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또 둘다 신유(神癒)를 대단히 강조했고, 공동식사, 결례, 재산 공동 소유같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입니다. 물론 에센파와 쿠파공동체는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즉 에센파와는 달리 쿠파에는 독신주의를 고수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있지만 주요한 것은 아니고, 역시 에센파와 쿠파 공동체는 같은 부류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쿠파 공동체가 에센파의 한 중요한 그룹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쿠파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쿠파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엄존하고 있었던 악의 실체라고 보았던 로마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킬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은 기독교 공동체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서에 반영된 초기 기독교인들은 쿠파 공동체처럼 은둔자적인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분파(sect)적인 성격을 지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문서들, 예를 들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공관복음서의 소묵시록(마가 13장, 마태 24장) 등은 이들의 세계관과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쿠파 공동체는 이사야가 말하던 여호와의 종을 기다렸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핍박이 따르던 1세기의 원시 기독교는 메시아를 대망하던 후기 유대교 사상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문서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모티브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한대로 이 에센파(쿠파 공동체를 포함하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과 더불어 유대교의 유력한 사회 그룹이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셋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센파는 세 집단과는 달리 세상적으로 단절할 것을 자신의 멤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흔히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고 그들이 율법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다보니, 바리새파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탈세상과 유대주의를 주장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센파와 비교하면 오히려 바리새파가 더 세속에 머무는 그룹이었고, 더 온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바리새파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바리새파 나뭇대로의 종교적 특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서의 저작 당시에 바리새파가 가장(혹은 단 하나의) 유력한 그룹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콤란공동체를 비롯한 에센파등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써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여타 집단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켈롯당과 같은 부류와는 결정적으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네 집단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 및 유대인들은 획일적인 방법과 양태로 외세나 불신앙자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처세와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장에서는 메시아대망과 초대교회와 유대교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모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썼을까요?
켈롯당파는 어떻게 그 모든 열심을 가지고 제 2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에센파와 콤란공동체는 공동체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함께 멸시하던 “이 땅의 사람들” (암 하레스)로 불리던 당시의 어부들, 그리고 세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 보고,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위의 네 분파 추종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미가서 6:8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돌아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